



2021년 8월 1일(제1046호) 연중 제18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오늘 1독서로 읽은 탈출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건너면서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을 전합니다. 홍해를 건너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것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익숙했던 이집트의 삶에서 완전히 새롭고 낯선 광야의 삶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느님의 이끄심에 의지하며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삶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의 삶을 떠올리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다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탈출 16,3)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만을 들으신 하느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양식을 내어 주시어, 당신께 믿음을 두고,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느님께서 베푸어 주신 양식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하느님과 모세에게 대듭니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임 걱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민수 21,6)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말씀을 듣고 불뱀을 보내시어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민수 21,4-9) 불뱀을 마주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뱀을 치워달라 간청합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본 이들이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하느님의 뜻에 맞갖은 민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 복음 말씀의 내용과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당신을 따라나선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빵과 물고기를 든 예수님의 손에서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요한 6,13) 풍족하게 양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양식을 내어 주시는 참된 하느님으로, 모두에게 생명을 선사하시는 하느님으로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

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요한 6,14) 그리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요한 6,28)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εργασματα 에르가조마이는 ‘일을 해서 삶을 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여, 벌이를 할 용의가 있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인간의 노동이나 각자가 이룩한 업적을 통해 주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찾아 나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요한 6,26)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는 참된 하느님이자 생명을 선사하는 분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들 손에 주어진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하느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고 머물러 믿도록 초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4) 이제, 사람들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나아가 예수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모시면서 빵을 먹었다는 안도감만, 의무를 다했다는 만족감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모시면서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길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는 않았을까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해도 예수님께서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로운 한 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뵈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태(미티아) 신부
명림(15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빈호송
복 음
영 성 제 송

탈출 16,2-4.12-15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에페 4,17.20-24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요한 6,24-35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이홉 번째 시한

그들에게는 농사짓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또한 산림 속에 널리 퍼져 있는, 그렇지 않아도 몹시 겁많은 북쪽의 토민들에게 “내려오지들 말아라. 이 땅은 점령되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만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드문드문 이 지방 몇 군데에서 몰래 개간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생계에 필요한 곡식을 그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달단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은 가족이 없습니다.

만주는 땅이 매우 비옥해 보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키 높이까지 무성하게 자라는 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경작지에서는 옥수수, 조, 메밀, 밀이 납니다. 그러나 밀은 아주 조금밖에 안 납니다. 그것은 땅이 축축하고 또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교님은 만주를 뒤덮고 있는 황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현 왕조(즉 청나라)의 창시자가 만주를 정복할 당시 그 최초의 백성을 정복한 지방으로 옮겨 살게 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제국을 점령하려 갔을 때 그의 모든 군인과 그 가족들,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신하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요동에 남겨 놓았고 나머지는 중국의 주요한 도시들에다 두루 분포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들을 의무에 얽매이게 하고, 처음부터 반란을 억누름으로써 이 도시들의 소유를 보증하고 또 그의 제권(帝權)을 강화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과 만주인들은 2세기 이래 비록 같은 성 안에서 살며 같은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두 민족은 동화되지 않고 각기 자기의 혈통을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줏집에 들어가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 “니 쓰 밉(Ming, 明) 즈, 칭(Tsing)?”, 즉 “당신이 중국인이오, 만주인이오?” 하는 질문보다 더 혼한 질문은 없습니다. 중국 사람은 명나라 왕조의 이름을 따라 불리고, 만주 사람은 기(旗)의 이름을 따라 불립니다. 그것은 원래 만주인들이 8개의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므로 부족마다 각기 다른 깃발 아래 모이게 되면서 그 기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	---	---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너의 자리다.

"너의 자리다.
올라오렴."

"아직요."

"아니요."

그렇게,
오늘도 도망쳤다.



"아직 때가 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화이야기

최후의 만찬 중 부분도



오늘 이 그림은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고 작품을 제작한, 그러나 20세기에 발견된, 한 수녀님이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의 세부도로, 중앙에 예수님과 사도요한, 그리고 식탁 중앙에 빵과 포도주(그리고 아기 돼지 요리 음식)가 그려져 있다.

플로틸라 벨리 수녀
1568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
(진제작품은 6mx2m)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 북쪽 끝자락 이방인의 땅으로 가십니다. 갈릴래아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 주시는 표징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나섭니다. 그렇게 모여드는 군중에게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과 빵과 물고기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은 이제 예수님을 모셔다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에서 카파르나움으로 가십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군중은 십육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카파르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군중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빵을 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 주시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것을 확신하게 해 주는 더 많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군중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성당에 열심히 다니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자가 되고, 시험에 합격하고, 성공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잘 만드는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다른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빵에서 벗어나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 봅시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입니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람을 살리는 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처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가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미시 ‘오늘의 묵상’ 발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시 - 연중 제18주일: 지상대 인생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군별 화상회의

때: 8월 3일(화) 16:00, 2작사

5일(목) 16:00, 교육사

◆ ‘신부(神父)의 책장’ 인내

- 시즌2 제1화 : 8월 4일(수) 저녁 8시 업로드

- 드디어 시즌2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중” - “이렇게 하는 중이 진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